

# 아빠와 함께 국립공원에

서산초등학교 5학년 8반  
가 모 연

“자 출발이다.”

서둘러지는 발걸음은 한걸음에 버스타는 곳까지 도착하였다. 이렇게 서둘러 가는 곳은 바로 지리산! 국립공원협회 회원이신 아빠를 따라 국립공원협회 행사장으로 가는 것이다. 버스는 아직도 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벌써 행사장어가 있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가 나의 마음을 더욱 설레이게 하였다.

12시 30분쯤 되었을까. 어느 한적한 공원에서 우리들은 버스에서 내려 미리 준비해 온 점심을 먹었다. 하루종일 앉아 있었지만 밥맛은 꿀맛이었다. 3시쯤 되었을까? 드디어 행사장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행사장으로 올라가 보니 한쪽에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서 주는 기념품을 받은 다음 행사장에서 펼쳐는 행사를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

그곳에서는 환경보존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다. 들으며 생각해보니, 우리 주위의 작은 자연에서부터 커다란 자연 환경까지 파괴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작은 잡초부터 커다란 나무까지’ 우리가 모두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 더욱 훼손시키다니 말이 안된다. 뭉개고, 베어버리고... 그러고도 남았다고 갈아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도시를 건설하거나 빌딩을 세우는 것 보다는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텐데...

나 자신 부러라도 작은꽃 한송이라도 아끼고 보존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등산을 하자고 하셨다. 영차 영차 등산을 하다보

니 푸른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푸른 나무들을 보니까 마음이 탁트였다. 그런데 이곳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아빠께서는 쓰레기를 모두 주어 내려오셨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쓰레기는 보이는 만큼 줍고, 나무는 있는 만큼 심었으면 좋겠다.

등산을 하다보니, 어떤 쪽지를 나누어 주었다. 국립공원 문화제전 행사에 참석한 탐방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운권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행운권을 꼭 쥐고 내려오니 또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우리의 전통민속놀이와 열린음악회였다. 11시쯤 추첨을 하였는데, 엄마와 아빠께서 당첨되었다. 12시쯤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7시쯤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을 먹었다. 낯선 음식도 있었지만 참 맛있었다. 아주 아주 맛있는 아침을 먹고 유명한 온천에 갔다.

‘역시, 지리산은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를 보니 웬지 새삼 푸르게 보였다. 이제부터라도 작은환경, 작은 잡초 하나라도 아끼고 보존해야겠다.

